

[목회자 모임]

## 십자가로 가는 길 - (7)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같이

2020. 5. 29. 이현래 목사

요한복음 14장부터는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한다. 처음에 시작하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14:2)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차츰 깊어져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온다.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 16장에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형제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전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고,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이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갑자기 뭐가 왔는가 보다. 그래서 ‘성령이 왔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고 하였고, 예수는 살아났다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후반부의 바울의 사역은 로마서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그 이야기다. 그리고 비유로 말하면 접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도 연합을 이야기한 것이다. 접을 붙이려면 양쪽이 다 잘라져야 한다. 뿌리 쪽에 있는 가지도 잘라져야 하고, 접붙이려는 가지도 역시 잘라져야 한다. 서로 잘라진 가지를 붙여서 접을 붙인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거듭난다. 다시 난다.’고 이야기한다. 전부 다 같은 말인데 깨달음이랄까, 경험이랄까, 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하는 것뿐이다.

연합이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예수는 신이다.’는 관념을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다. 삼위일체의 신관을 먼저 배웠으니까 사람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연합이라는 말이 어렵다. 그 책을 읽어 보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머리가 아파서 못 읽겠다.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해서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데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칼빈의 구원론의 절정은 연합이다. 그런데 그 연합을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다. 자기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

이다. 천재들이 한 말을 알아들으려니까 어렵다. 그 어려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사실 삼위일체론도 그렇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렵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읽어도 결론이 안 나는 것이다.

연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연합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다 쓰여 있다.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신과 인간이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이 문제다. 예수와 연합을 이야기해도 그는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 그는 선재하고 선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이니까 아주 어렵다. 이것을 우리 같은 범인들은 다 알아듣기 어렵고, 거기에 딸려 가다가는 복잡하고 모르니까 아무 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근원으로 돌아가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은 연합이다.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놓았다. 사람을 남자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어놓았다. 또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고 한다. 남성만도 아니고 여성만도 아니다. 두 성을 따로따로 해서 둘이 연합하도록 만들어놓았다는 뜻이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2장에 가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합하여(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2:24)라고 나온다. 결국 만물은 연합으로 생존하도록 되어 있다. 어느 것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만들었다. 연합할 수 있게 만들었지 연합할 수 없게 만들어놓았겠는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았으면 어떻게 연합하겠는가?

근원으로 돌아가면 내 생각에는 간단하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근원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로 돌아가면 너무 쉬운 일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왜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가? 자신이 형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은 영이요 생명이고 실재이고 근본이긴 하지만 형상이 없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일차적으로 사람의 몸뚱이를 보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만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나 생각을 보고 사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 형상은 없

는 것이다. 형상이 있어야 그것이 표현된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라는 말이 나왔다.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만들었으므로 당연히 연합을 해야만 되지 안 하면 창조가 안 된 것이다.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은 당연하도록 만들어놓았다. 복잡하게 종교적인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연합하도록 되어 있다.

아담에게 생물들을 이끌어 왔던 것은 너의 배필이 될 생물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니까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아담이 어디 가서 찾아온 게 아니지 않은가? 아담으로서는 자기의 배필을 못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만들도록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만들어 주어서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것이지 자기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을 만든 게 아니지 않은가?

연합은 너무 당연하다.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인데,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간단하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연합을 하고 안 하고 그럴 일이 아니다.

개와 소가 노력한다고 연합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과 노력한다고 연합이 되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밖에 못 한다. 사람은 그것을 못 한다. 사람이 할 일도 하나님이 못 한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 고유하다. 어떤 것이 고유하면서도 그 고유한 것이 연합이 되어야만 생육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것을 설명하느라 삼위일체 논쟁이 날 때 다르지만 하나라고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것이다. 당연히 그렇다. 다르지만 연합이 되게끔 만들어놓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끼기에 따라서 베드로는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고 했다. 바울은 접붙였다고 했다. 접붙였다는 말 속에는 함께 잘라지고 함께 붙었다는 말이다. 사도 요한은 다시 난 것이다, 거듭

난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면 다 같은 이야기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 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17:21) 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17:5)라고 했다. 요한복음 17장이 전부 그 이야기다. 연합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도 더 어려우니까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말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야기 하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도 잘 안 된다. 요한이 말한 대로 거듭났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다.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려오지 못한 그 상태가, 나의 상태라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예수님과 내가 다르지만, 비교할 수 없지만, 딱 한자리 운명의 자리에서만 하나로 만나진다. 다른 데서는 만날 수가 없다. 만났다고 해도 남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확실하게 전달이 잘 안 된다.

거듭남을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될 것 같지만 잘 안 된다. 나도 확실치 못하고 듣는 사람도 확실치 못하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역시 그렇다. 받은 사람은 확실할지 모르지만 들어보면 확실하지 못하다. 접붙이는 것도 그렇다.

이래서는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수 없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아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 다 알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어떻게 어린 아이로부터 다 알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 창조 세계 전체가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 뜻은 연합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가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거룩한 생활을 하고 놀라운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연합이 되어야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 아닌가?

남자가 공부를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훌륭해지면 자식을 낳겠는

가? 자식을 못 낳으면 끊어진다. 하나님 창조가 끊어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하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뿐이다. 자신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문제다. 이것은 배우는 문제도 아니고 수양하는 문제도 아니지 않은가? 누구나 되는 일이다. 보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저 사람과 내가 하나구나. 보기만 하면 된다. 아무 것도 어려운 것이 없다.

이것이 막연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공부해 보니까 아예 손도 못 댔다.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겠는가? 물 위로 걸어간 분과 내가 어떻게 만나겠는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냈다는데 어떻게 그분과 내가 만나지겠는가? 우리가 믿기는 그분을 믿었다. 저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다 그분을 본받아 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해봐야 흉내도 안 된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행한 사람도 많다. 그런데 아무리 해봤자 그것이 예수와 하나된 것이 아니다. 은사일 뿐이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한 것이 아니다. 칼빈도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모든 것이 헛일이라고 말했다. 자기 아들과 결혼하지 않은 한 누가 그 아들의 상속권을 다 가지고 있고 같이 살겠는가? 연합이 되어야만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사람을 위해 준비해놓은 모든 것이 공유가 된다. 결혼하면 공유가 되는 것이다.

연합을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 우리가 가진 것이 달라서 그렇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물을 다시 물로 넣기도 어려운데 되겠는가? 안 된다. 소유 때문에 다르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다. 소유로 말하면 다 다르다. 성격으로 말하면 다 다르다. 지식으로 말하면 다 다르다.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 부부간에 살아도 똑같지 않다.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똑같이 안 된다. 그런데 어디서 연합이 되겠는가? 우리의 소유 안에서는 연합이 불가능하다. 행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같은 운명 안에서 밖에는 연합할 데가 없다. 한 운명 밖에는 말이다. 그 한 운명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서 나타났다. 거기서 비로소 나타났다. 우리는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한 것도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런 분이 못 내려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3년이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니이다.”(마16:16)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했겠는가?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생각을 제쳐 버리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거기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이 끝나버렸다. 내가 안다는 것이 다 틀렸고,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이 다 끝나 버렸다.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 같다. 장님에게는 밤과 낮의 구별이 없다. 더 캄캄하고 덜 캄캄한 것이 없다. 지식의 세계는 갈을 수가 없다. 한 자리에 가면 다 똑 같이 아무 것도 아니고 없어져 버린다.

십자가에 가면 우리 알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 무효다. 원인무효가 되어버리고 만다. 결혼을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다. 다 소용이 없다. 난 이렇게 산다고 했지만 안 된다. 나는 결혼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꿈을 많이 꾀 사람은 더 안 된다. 결혼에 대한 이상이 많은 사람은 더 안 된다.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산다. 그런데 고르고 골라서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살아보면 안 된다. 다르니까 그런 사람이 더 안 된다.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안 되는 것은 너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아주 쉬운 자리이다. 서로가 한 운명이니까 쉽지 않은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해보면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 저 사람과 나는 성격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연합이 안 된다. 거기서는 절대로 연합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은 완전히 두 조각이 되어있다. 이것은 합해지기 어렵다. 연령적인 차이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도 아니다.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다. 내가 살아온 이후로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한 나라에서 같은 민족끼리 갈라져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 처음이다. 앞날이 참 걱정된다. 언제 이것이 합해지겠는가? 굉장히 염려스럽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 그는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쪽으로 밀어 붙인 것 같다. 밀어 붙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할 때까지 대답

을 안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만일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면 모든 일이 다 끝나 버린다. 아무 것도 안 된다. 우리와 또 천리만 리 떨어져 버린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다. 또 아들의 신부를 위해서이다.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을 해부해서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깊이 잠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잠드신 것이지만 사실은 또 자기를 위해 잠드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신부를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별것을 다해주어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다녔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참 친하게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친해졌는지 제자들을 보라. 전혀 친해지지 않았다. 인간적으로는 친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가까워지지 못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부인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하겠는가? 베드로는 진실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 방법대로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빗대가 나와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하와가 나올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할 때, 이삭은 밖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어떤 여자가 울지도 모른다. 자기 마음에 들 사람이 울지 아무것도 모른다.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이나, 이삭이 밖에 나와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없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그분을 위해서, 아들의 며느리를 위해서, 깊이 잠들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 편이 볼 때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사정이 그렇고, 우리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연결하는 분이 되셨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리브가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며느리를 구한 것이고, 이삭 편에서 보면 아내를 구한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남편을

구한 것이고 아버지를 구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해졌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면 전할수록 행복하다. 왜냐하면 전할수록 우리 위치가 확실해진다. 신부로서의 내 위치가 전하면 전할수록 확실해진다.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여자들이 대부분 결혼하면 시집에 대한 불안이 있다. 좀 담대한 사람들은 헤치고 나가는데, 소심한 사람들은 시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명절날만 돌아오면 시집에 가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을 잘 처리 못하는 사람은 시집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긴장하고 온다. 남의 집이니까 거기서 자기 위치가 확실치 못하다. 담대한 사람들은 이제 내 집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 시집이라는 것이 아주 어렵다.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해야 편안해질 것인데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해지겠는가? 그래도 아기라도 낳으면 그 집 식구가 되니까 편안해진다. 여자들 심정이 그런 것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똑같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연합으로 회복된다. 처음에는 너무 쉬웠던 것인데, 우리가 지식의 세계로 빠지다보니 어렵게 되어버렸다. 생명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쉬운 것인데,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렵다. 서로 재박야 하니까 어렵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나를 어떻게 해줄지 모르니까 아주 불안하다.

생명의 세계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것이니까 아주 간단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15: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15:5)는 다 같은 말이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 14:16)라고 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그것이 안 되었다.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그러면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길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 바울의 말을 들어도 그것이 맞기는 맞고,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의 운명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쉽다. 그 운명과 내 운명이 하나다. 능력은 다르지만, 가진 것은 다르지만, 운명은 하나니까 너무나 쉬워졌다.

요한복음 17장 18장으로 가면 계속 연합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알고 보면 그 길이 그분은 점점 우리와 한 자리에서 만나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우리는 멋모르고 따라갔지만, 베드로나 제자들도 멋모르고 왜 저렇게 가나하고 불안해서 따라갔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고 정해 놓으신 길이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고서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다. 그때부터 그것이 배필을 찾는 과정이다. 많은 생물들을 만나봤을 것이다. 많은 생물들 속에는 내가 선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가 소개해서 이 사람 좋다고 해서 만나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다 봐도 내 생명과 다르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죽음을 거쳐서 한 몸을 만난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부름 받은 사람의 과정도 이 길로 오기 위해서 부름 받는다.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자식을 못 얻었다는 것도 이 길이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다. 야곱이 참 욕심 많고 재주 많은 사람인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갔다. 이것도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모세가 젊은 혈기와 배경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도망쳐서 8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다.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살았다. 그때 또 부름이 되었다. 다 모두 같은 길이다.

이 길이 모두 예수께로 가는 길이다. 다말이 목숨 걸고 자기 시아버지를 만났던 것도 이 길로 가는 길이다.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도 이 길로 가는 길이다. 이방 여자 룯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던 것도 이 길이다. 자기 동족을 버리고 왔다. 다 이 길을 따라서 예수가 나왔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었다. 그냥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면 맨 처음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바로 그렇게 해버리면 될 것인데 길이 있다. 이 길로 와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만나게 된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다. 어디로

부름 받은 사람의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의미가 다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한번 부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내 인생을 봐서 그렇게 생각한다.

교회에서도 참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몇 십 년을 같이 있어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내 맘대로 단정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서 자기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배열한 과정이 있다. 그 노선에서 각자의 경험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노선만은 확실하게 서 있다. 다른 길이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길을 전하는 것이다. 이 길을 전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다른 길에 가서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아무리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세상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기독교가 아무리 많이 퍼지고 커져도 세상 도와주는 것 외에 뭐가 더 있겠는가? 한 것이 별로 없다. 지금 결국 현대문명이라는 이 문명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조를 했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별로 한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아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지금 누가 봐도, 기독교인들이 봐도, 옛날보다 하나님나라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울은 그래도 그날이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는 특별한 이단들이나 모를까 그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한 치도 발전이 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전혀 발전된 것이 없다.

생명이 끊어지고 지식으로 흘러 들어간 세계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약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도록 다가오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이다. 절대

적인 은혜이다.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자기를 열어 보여주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십자가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를 만날 수가 없다.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나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고민이었다. 지금은 십자가를 그렇게 지지 않았으면 나와 관계가 없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다. 그전에는 이런 감사가 없었다.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런 감사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야 그 감사가 된다. 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살게 하신 것이 은혜이다. 내가 하나님 은혜는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 은혜는 감사가 안 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 때까지 살려두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다.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좌우간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사랑방에 누가 그렇게 썼다. 딸이 와서 부부간에 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보고 왜 그 모양이냐고 했다고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르다면서 왜 아빠는 그 모양이냐고 하니까 고민이 된다고 글을 써 올렸다. 여러분들이 위로한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마지막에 막말을 했다. 고민해봤자 그것도 하나도 상 받을 일이 못된다. 왜냐하면 다 나 편하자고 하는 말이지 않은가? 부부간에 사이가 좋아서 편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누가 그것을 상을 주겠는가? 누구를 위해서 했어야 상을 준다. 내가 마지막에 그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내려오고 죽었다. 이 말만 계속 해보라. 그러면 좌우간에 이판사판 날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 놓았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밖에 더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이나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내가 불평하면 그 말을 하고, 딸이 불평하면 또 그 말을 하고, 계속 그 말을 하라고 했다. 두 쪽 날 때까지 해보라고 했다. 그러면 좌우간에 어디 한쪽에서는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잘산다고 하나님이 참 고맙다고 하겠는가? 못산다고 불쌍하다 하겠는가? 그것이 다 소용이 없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증인으로 살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살면 뭐가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 아무도 못 산다. 군대 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면 아무도 군대를 못 간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만일 불평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달래도 보고 잘해주고 해도 방법이 없으면 그냥 아는 것만 말하면 된다. 그러면 쉽지 않은가?

성경도 모르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는 것만 말하면 된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말해야 된다. 이것저것 다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다. 모르는 것은 놔두고 확실하게 은혜가 되고 확실하게 감사가 되는 것만 이야기해도 끝이 없다. 아마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틀림없이 뭐가 되도 될 것이다. 안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칭찬이라도 할 것이 아니겠는가. 너 힘든데 나 죽은 거 이야기하느라고 수고했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온전한 자리로 부르셨다. 조금도 이상한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당연한 자리로 부르셨다.

감사합니다.